

보도자료



금융위원회	보도	L도 2019.5.9.(목) 배포시 배포		배포	5.9(목) 10:00	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
	금융위 중소금융과장 홍 성 기 (02-2100-2990)		당당	김 태 훈 사무관(02-2100-2991) 최 미 영 사무관(02-2100-2994)		
책 임 자	기재부 자금시장과장 김 명 규(044-215-2750)				조 찬 우 사무관(044-215-2753)	
	행안부 지역금융지원과장 하 종 목(02-2100-4284)				한 상 정 사무관(044-205-3949)	
	농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장 정 아 름(044-201-1751)				남 현 중 사무관(044-201-1760)	
	해수부 수산정책과장 최 현 호(044-200-5420)				박 천 일 사무관(044-200-5429)	
	산림청 산림정책과장 이 준 산(042-481-4130)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 영 주(02-3145-6770)				임 창 옥 사무관(042-481-4037)	
					이 종 오 팀 장(02-3145-6773)	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이 상 민(02-3145-7550)				이 호 진 팀 장(02-3145-7447)	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이 희 준(02-3145-8070) 저축은행중앙회 전무 하 은 수(02-397-8601) 여신금융협회 전무 오 광 만(02-2011-0607) 신협중앙회 이사 장 병 용(042-720-1005) 박 영 범(042-720-1006)			당 자	정 대 헌 팀 장(02-3145-8072)	
					정 성 문 부 장(02-397-8640)	
					김 효 석 부 장(02-2011-0743)	
				오 윤 록 부 장	(042-720-1360)	
	새마을금고중앙회 이사 황 국 현(02-2145-9006) 오 승 원(02-2145-9800)				심 동 보 본부장(02-2145-9480)	
	농협중앙회 이사 소 성 모(02-2080-5017)				안 호 근 본부장	(02-2080-5055)
	수협중앙회 상무 강 신 숙(02-2240-2040) 산림조합중앙회 상무 조 태 원(02-3434-7123)				민봉식부 장	(02-2240-2200)
					석 종 철 부 장(02-3434-7230)	

제 목: 제2금융권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

1

회의 개요

- □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'19.5.9(목)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「제2금융권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」를 개최하고,
 - 상호금융·저축은행·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가계·개인사업자 대출 관련 주요 리스크 요인을 점검하고, 면밀한 관리를 당부
 - (일시 / 장소) '19.5.9(목) 10:00~11:30 /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 - (참석) 21명
 - **금융위원회 부위원장**(주재), 금융산업국장, 중소금융과장
 - 기재부 차관보,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,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, 해수부 수산정책실장. 산림청 차장
 - **금감원 부원장보**, 저축은행감독국장, 여신금융감독국장, 상호금융감독실장
 -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저축은행중앙회, 여신금융협회 임원

가. 부위원장 모두발언 주요 내용

- □ 김용범 부위원장은 「제2금융권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」에서, 제2금융권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
 - 상호금융·저축은행·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분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,
 -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"약한 고리"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,
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,
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
- □ 이를 위해 제2금융권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, 연체율 등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나갈 것임을 밝힘
 - 제2금융권의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, 증가속도 관리· 질적 구조개선 등을 위한 기 발표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고,
 - 부동산·임대업 등 특정업종 편중현상, 연체율 상승 등 잠재적 부실위험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,
 - 이 과정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이나 영세 자영업자 등의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관리해 나갈 필요
- □ 아울러 관계기관과 함께 제2금융권 대출상황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살피고, 필요시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을 해 나갈 것임을 밝힘

나. 제2금융권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 동향

- □ (가계대출)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그간 지속적인 관리노력 등에 따라 '18년 이후 증가속도가 상당히 안정화
 - *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: ('16)12.9% → ('17)6.7% → ('18)**2.9%**
 - 다만,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에 공급되는 제2금융권 대출의 특성상, 향후 경기상황·금리동향 등 영향에 선제적 대비 필요
 - * 취약/비취약차주 금융기관 가계대출 비중('18.2Q, 한은): (취약) 은행 34.5% **비은행 65.5%** (비취약) 은행 58.5% **비은행 41.5%**
 - ** 취약차주 :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(하위 30%)또는 저신용($7\sim10$ 등급) 차주

- □ (개인사업자대출)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은 최근 빠른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, 부동산・임대업대출 등 편중현상도 심화
 - *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 : ('17년)44.0% ('18년)29.9%
 - *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중 부동산·임대업 비중 : ('17)33.5% → ('18)**38.1%**
 -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나,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다소 상승하고 있어,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 필요
 - *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('17말→'18말): (제2금융권)1,47%→1,66% (상호금융권)0,74%→1,15%

다. 제2금융권 가계·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방향

(1)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 방향

- ① 금년 가계부채 관리목표 "5%대"에 맞추어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
- ② 차주의 소득 등 상환능력에 기반한 대출 관행이 정착되도록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를 금년 6월까지 차질없이 도입
- ③ 주택·건설시장 상황 등이 상호금융 조합 등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 강화
 - ①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 대해서는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 강화
 - * ①예대율규제(80~100%)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 금지 ②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(500억원) 신설 등
 - ② 새마을금고는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,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(19.4월말, 7.4%) 이내로 관리
 - ③ 금감원・상호금융권 중앙회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 구축
 - 전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 주기적 파악(분기별)
 - 집단대출 급증,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시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,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 조치
- ④ 저축은행·여전업권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 도입
 - * [저축은행] 43%('20년말까지) [여전사] ('19년말) 10% ('20년말) 15% ('21년말) 20%

(2)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방향

- ①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·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 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 점검
- ② 부동산·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 규제* 이행상황,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면밀히 점검
 - * RTI(Rent to Interest): 연간 임대소득 / 이자비용 (주택 1.25배, 비주택 1.5배 이상)
- ③ 상호금융조합·저축은행 등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회사 부실 관리
- ④ 영세한 개인사업자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^①기발표 사항 차질없이 이행^{* ②}연체단계별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 도입** 등 추진
 - *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, 자영업자 맞춤형 보증 등
 - ** ${}^{\bigcirc}$ (연체전) 시전경보체계 구축 ${}^{\bigcirc}$ (연체후) 원금상환 유예, 채무 변제순서 선택권 부여 등

※ < <u>별첨: 부위원장 모두발언 ></u>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@korea.kr

